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12주간

제12주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들어가는 말

바오로 성인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2,20)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했듯이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2항)

몇 주째 당신은 ‘인간의 신비’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신비에 대한 체험은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궁금해할 때 시작됩니다. 어릴 때 우리 대답은 교리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인 신학을 반영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오한 계시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친교’에 언제나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소속감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텍사스나 버몬트, 아이다호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우리 혼을 물들입니다. 다른 단계의 소속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사람, 로스앤젤레스 사람, 그리고 성 유다 본당 신자, 컬럼버스 기사단 회원, 미국혁명여성회 회원 등등. 우리는 이미 쉽게 ‘소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나 벌이나 원숭이의 후손인 데서 이런 소속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인 우리는, 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상급의 원천에서 나왔음을 압니다.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각 위격이 영원히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 대부분 우리가 ‘속한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며, 여기 속한다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주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느님의 시선으로도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지적하듯, 영원으로부터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 안에서 만물을 한데 모으는” 하느님 계획의 목적”(에페 1,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772항 참조)으로 교회를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둘러싸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90항 참조)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교회는 혼란한 시대를 살

고 있습니다. 유럽이 분열하고, 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며, 사회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라는 설레는 희망을 안고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구원 계획’과 ‘보편 구원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하느님은 메시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의 예속에서 해방”(「가톨릭 교회 교리서」, 601항)시키시고 신비체에 속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전례문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이는 모두’ 하느님께서 하늘로 들으시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감사 기도 제4양식 참조)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지우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종’ 같은 것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겼고, 평범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다른 모든 인간을 당신께 합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듯,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2항) 그분은 인성을 지워 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성에 합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성령의 그 가르침에 열려 있기에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러 주 동안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연민하시듯 당신도 연민하는 사람이 되고자 성령께 맡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가슴에 부어 주시는 신적 사랑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또는 그만두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이 내포하는 명예와 품위에 맞게 행동하는 방식을 찾아 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틀을 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성숙한 이때에 바오로 성인이 필리피 신자들에게 증언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1,21)

기도 도움말 피정 이후를 생각하며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잘' 합니까?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대답해 보세요. 첫째,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기대하지 못한 곳으로 하느님이 이끄시도록 그대로 둡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점점 더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일과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평소와 거룩하게 행동하려면 매일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성찰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는 행동 양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는 이들의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행동 양식을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 5장) 당신이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가졌든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는 태도, 그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그 태도에서 형성됩니다. 온유하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간해서는 성숙한 제자를 불안하게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괴롭혀도 그들은 복을 빌어 줍니다. 외투를 빼앗아도 그들은 그 안에 입을 웃도 벗어 줍니다. 아무리 골치를 썩여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마태 5,4-12 참조)

누군가 옷을 뺏으려 하는 극적인 상황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살 때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매일의 성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실천에 옮겨 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씩 해 보십시오. 일요일에는 사랑, 월요일에 기쁨, 목요일에 호의와 선의..., 아니면 한 주에 한 열매를 실천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열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일 아주 긍정적인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오로 성인이 필리피 신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늘 기뻐하는’ 태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필리 4,4-6 참조) 이런 태도는 우리 미국인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며, 지금은 대부분 국민의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전 국민의 분위기가 당신 자신의 기분마저 어둡게 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오로 성인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에페 4,13)

어떤 방법으로요? “거짓을 벗어 버리고”(에페 4,25)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누구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에페 4,31) 에페소에 있는 바오로 성인의 친구들은 독실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성인이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에페 4,28) 그리고 추구해야 할 덕목들을 추가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

베드로 성인은 ‘최초의 교황 회칙’이라고 할 만한 편지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1베드 1,15)라고 개종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사람들도 완성에 이른 신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그들에게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1베드 2,1) 그러니 어쩌면 초기 교회도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는 것임을 당신은 이미 성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잘 요약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요한 3,18)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향해 분투해야 했습니다.

미사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함’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요한 3,20)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신비를 알고 있으므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명확하게 드러나 주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도 있다.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모든 은총이 있다.

— 성 이레네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이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기도에 제공하는 풍성한 자료들도 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항상 당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의식하도록 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은총 속에서 당신이 어떤 점에서 성숙하도록 초대받는지, 초대를 받아들이기라도 한 부분은 어디인지 의식하세요. 예를 들어, 기도에 충실하기, 더 거룩한 관계를 맺기 등. 이 선물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모님, 예수님의 여성 친구들, 친척들이 열한 제자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임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28,16-20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단상

파견에 앞서...

새 미사 통상문에서는 집전자가 다음 네 가지 권고 중 하나로 미사를 마치며 신자들을 파견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나아갑시다.”*가 첫 번째입니다.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나아가자’는 말이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둘러 인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앞에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셨을 법한 말입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교사나 신학생들은 이것을 듣고 자신의 부르심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또 이 권고는 부모들에게도 자기가 받은 부르심이 사목을 수반함을 일깨웁니다.

세 번째 권고는 당신이 지난 석 달 동안 한 일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평화로이 가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인사는 지역 주교부터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기도해서 도달한 지점과 분명 맞닿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총을 가져올 운명으로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자유 안에서 더욱 성숙해진 지금 그 운명을 실행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탄할 줄 아는, 어느 작은 행성 위의 작은 피조물이 광대한 우주에서 하느님이 형태를 갖춰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느님이 직접 하신 일을 보고 사랑하고 경탄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주 동안의 기도와 성찰을 마치면서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집전자가 가장 단순한 네 번째 파견 인사로 미사를 마칠 때 진정 와닿을 것입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네, 그럴 것입니다.

메모

* [역자 주] : 우리말 전례문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로 더욱 명시적으로 번역되었다. 뒤이어 나오는 세 권고는 각각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로 번역되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잦았는가. 기도라는 강건한 기둥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빌라의 성 테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의 기도 방법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피정에서 해 봤던 기도 방법들을 염두에 두세요. 렉시오 디비나, 숙고, 묵상, 관상, 성찰 등입니다.
2.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은총 속에서 당신이 어떤 점에서 성숙하도록 초대받는지, 초대를 받아들이기라도 한 부분은 어디인지 의식하세요. 예를 들어, 기도에 충실하기, 더 거룩한 관계를 맺기 등.
이 선물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모님, 예수님의 여성 친구들, 친척들이 열한 제자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임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28,16-20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이 피정을 하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느꼈다. 특히 때에 그랬다.

피정을 시작할 때를 돌아보니 내가 식으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숙한 것을 알겠다.

나는 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실 때에 내 삶에서 그것은 하라는 뜻이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함된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교회는 배와 같다. 배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성경 어느 구절로 어떻게 기도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정해 둔 기도 장소와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세요.
2. 이번 주간에: 피정 초기에 '은총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이 피정 기간을 돌이켜 훑어보고 하느님의 영이 당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 위로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사도 2,1-4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단상

하느님 백성의 탄생

예수님 시대에 파스카 50일 뒤는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있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 사건이 하느님 백성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경축하신 날은 최후의 파스카 50일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50일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하느님의 새 백성이 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오순절(성령강림대축일)은 교회의 탄생을 알립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명은 … 성령과 이루는 완전한 친교 안에서 실현”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6항)

예수님은 성령께서 교회 위에 머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사도 2,38)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사도

2,42)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성찬례를 지내며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나누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견진성사에서 주교님이 안수했을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을 합니다. 가르침을 충실히 받습니다. 믿는 이들의 친교인 교회에 머뭍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빵과 잔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다음으로 그들이 한 일도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본당과 자선 활동에 시간, 재능, 재화를 기부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받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 선물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받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총의 시간을 마치면서 이 기간의 기도 체험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세요.

— 성 아우구스티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가 쉽게 느껴지고 위안 중에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하느님께 그것에 감사하세요.
2. 이번 주간에: 피정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당신과 함께하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의 기쁨 속에 머무시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 위로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사도 2,1-4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견진성사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를 새겨” 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인장을” 찍어 주셨다는 표지임을 일깨워 줍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04항)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장이 찍혔음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때문이다.

이 피정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올 날들을 생각하면 성령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성령이 진정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가 우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이 성경 구절과 오늘과 내일 할 기도는 당신을 '숙고' 기도 안으로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 안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청하고, 곰곰 생각한 다음에, 떠오른 바를 하느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의 기도로 마치세요.
2. 이번 주간에: 말하자면 '영신수련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굳셈의 덕을 수련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바오로 성인이 그에게 계시된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자유입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갈라 5,22-26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단상

영적 성장의 원리

로올라의 이냐시오는 몹시 조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를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습한 방법들 외에 말하자면 ‘영성 입문 수업’ 같은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갖고서 내가 잘 지켰는지 한 계명씩 성찰해 보고 잘 지키겠다고 결심한 뒤에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이 성찰을 잘하려면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살펴보려는 목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언제나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십계명으로 성찰하는 방법 말고도, 이냐시오는 ‘칠죄종’, 즉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이 죄들 때문에 애먹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교만이나 나태나 칠죄종 중 어느 것에도 절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악마가 반길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유용하다고 입증되는 기도 적용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과 능력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일단 ‘향주덕’(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덕이라는 뜻)인 믿음, 희망,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서 나머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추덕’, 즉 예지, 정의, 용기, 절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가입을 예지라는 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투표할 때 정의, 다시 말해 공동선을 염두에 두니까? 전례를 배워 볼 용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에게 다른 국가, 다른 계급에 대한 정치적 의견과 판단을 낼 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추덕 각각을 한 주씩 성찰하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알다시피 덕은 근육과 같습니다. 많이 쓸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덕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덕을 활용하는 것이 곧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덕을 무시한다면,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선물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당신 것입니다. 하나씩 하루 동안 들여다보면서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라는 선물들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성찰을 할 때 실패보다 덕행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몹시 조직적인 사람이든 반대로 조언이 필요할 정도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메모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서 어두워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승차권을 집어던지고 뛰어내리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기 관사를 믿고 기다린다.

- 코리 텐 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양심성찰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덕행이나 악습 하나를 택해서 한 주나 한 달 동안 성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거의 석 달 동안이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번 주에 결심을 세워 보세요.
3. 성경에서 주목할 대목, 되풀이: 바오로 성인이 그에게 계시된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자유입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갈라 5,22-26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은 이다

어떤 영적 행동들은 조용하고 차분해지도록 나를 초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 영적 행동들을 고수하려 한다.

여러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닦고 싶고 키우고 싶은 성격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

예를 들면 들이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식별하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께 감사드리세요.

— 아빌라의 성 데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교회는 수백 년 전에 불린 시와 노래를 결코 잊지 않고 시편이라는 찬란한 유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골라 그 구절을 가까이 두세요. 몇 편을 외우면 더 좋겠습니다.
2. 이 마지막 날에: 당신에게 큰일을 하신 하나님을 성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리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이 노래는 교회가 사용하는 훌륭한 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워 보면 어떨까요? 다른 기도와 시들도 외워 보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46-55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단상

찬송하나이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많은 것이 좋은 일이고 훌륭하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혼인 적령기에 들어선 소박하고 글을 모르는 소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른바 '신흥국'에 삽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에 점령된 곳입니다. 그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에게서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선택에 응할지는 그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깨닫자, 그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라고 응답합니다. 그 후에 그는 베들레헴 출신, 다윗 가문의 요셉과 결혼합니다. 요셉은 임신한 그를 받아들이고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줍니다.

세 사람은 모험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 아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요셉과 예수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성인이 되어 광야로 훌쩍 떠난 그 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자 어머니는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설득해 처음으로 기적을 행사하게 합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큼 중

요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성모님이 그분에게 포도주를 만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분 자신을 더 돌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유명했고 군중이 거의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권력자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놀라운 치유 기적들과 심지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여러 번 몸을 피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성모님은 거기, 그분이 벌거벗긴 채 달린 낮은 십자가 아래 서 계셨습니다. 성모님이 그분 곁에서 계셨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바람은 당신이 극진히 사랑하신 요한이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성모님의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단순하고 절대적인 '네'라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에 찬 감사와 찬미를 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 뒤에 성모님은 어린 아들에게도 주님을 찬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는 그분의 형제자매들인 우리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메모

표지석

- 우리가 하느님께 온 마음으로 ‘네’라고 응답하는 바로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 무한히 지혜롭고 강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지탱하고 계십니다.
- 우리가 성숙했을 때 바오로 성인과 함께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기도를 마치고 남은 하루를 어떻게 행동하면서 지내는지를 보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미사 파견 인사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잘 요약해 줍니다. “평화로이 가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는 필요한 덕목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라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 주교에게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힘과 확신을 우리가 가졌음을 확인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 향주덕,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의 열매를 산다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고 충만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